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공혜원 (중앙대학교 미래일터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문 요약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생태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때 기업가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번창한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생태계 환경을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VC투자가,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태계 현황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IT 기반 창업 기업 중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단계의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부, 엔젤,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창업지원기관,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에 대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국가 간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제도는 다른 선진 국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격근무 비율, 스타트업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지원 및 후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엑시트(Exit) 방법 다양화,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연대보증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제도, 투자, 고용, 사회문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제시되었다.

키워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기술기반, 투자, 투자자 인식

I. 서론

기업가정신이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Schumpeter는 이미 1세기 전에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고 기회를 추구하는 "창조적인 파괴" 또는 "혁신" 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Schumpeter, 1934). 기업가적 활동은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Audretsch, 2009), 특히 신생 기업(5년 차 이하)은 미국 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Haltiwanger et al., 2013; Decker et al., 2014).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는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기여한다(Stam, 2015). 잘 구축된 창업 생태계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발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저성장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Kuckertz et al., 2015). 따라서 창업가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는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커머스(E-Commerce) 스타트업 쿠팡은 설립 후 4년 차인 2014년에 미국 세쿼이아캐피탈로부터 1천억 원을 투자 받은 이후 2015년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기업가치 5.5조 원을 인정 받으며 1.1조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위메프', '티켓몬

* 주저자, 중앙대학교 미래일터연구소 책임연구원, chomiri79@cau.ac.kr

· 투고일: 2018-11-12 · 수정일: 2019-02-11 · 수정일: 2019-02-28 · 게재확정일: 2019-02-28

스타’, ‘엘로모바일’, ‘네시삼십삼분’ 등과 같은 기업들은 모두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09년 이후에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한국 내 대다수의 많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구축한 국가들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성숙해 있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영국의 런던 등은 성공적인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 국가 지역이며, 타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크 되는 곳이기도 하다(Arruda, et al., 2013; Herrmann et al., 2015). 성공적인 기업가정신 및 생태계 시스템을 자랑하는 몇몇 국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창업 초기부터 기업가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가들이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및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Hechavarria & Ingram, 2014).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관계자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Bala Subrahmanya., 2017). 기술기반 스타트업이란 창업가의 기술 및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창업을 일컫는다(김진수 외, 2016).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건강한 생태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될 때 성공, 번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ala Subrahmanya., 2017).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 및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에 더 많은 기여하는 바는 더욱 클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6년 차 이하의 새로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한다(Zahra, 2007).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는 자금을 포함한 경영, 법률 및 제도, 재무 등과 같은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구조 및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맥락 내 생태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소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긴 하였으나(김기찬·존로렌스, 2015; 전해진·박재환, 2015; Lee, et al., 2017),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Motoyama & Watkins, 2014).

그간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기찬·존로렌스(2015)는 한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횡단 분석을 통해 국가 간 기업생태계 건강성에 대해 비교 연구를 실시한바 있다. 또한 Lee et al.(2017)은 라이프 사이클(Start-up Life Cycle)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한국, 중국, 일본의 신생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생태계를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창업 환경 특성을 규명하거나,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전혜진·박재환, 2015). 이러한 연구는 모두 나름의 연구 의의가 있으나, 실제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글로벌 내 한국 생태계에 대한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한국 생태계 관련 개선 사항 및 발전시켜야 할 세부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Herrmann et al.(2015)의 연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벨리, 텔아비브, 런던,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별 대표 지역을 선정해 항목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VC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전문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 문제점, 장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해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고양은 물론 기업가적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문헌 리뷰

2.1 창업 생태계

오늘날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타트업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생태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Lee et al., 2017),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Herrmann et al., 2015).

창업 생태계는 전체 집단 형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내 다양한 상호 의존적인 행위자들을 나타낸다(Spilling, 1996; Iansiti & Levien, 2004). 창업 생태계는 새로운 벤처 창출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에 의해 진화

1) 출처: beSUCCESS(2014년 스타트업 미디어 뉴스 “1조 가치가 넘는 10개의 한국 ‘유니콘’들을 분석하다”

되기 때문에(Van de Ven, 1993), 창업 생태계 내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간과 될 수 없다(Spilling, 1996). 게다가 선행연구는 상호의존적인 공동체 창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Stam, 2015).

경제발전은 복잡한 기업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서로 많은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많은 벤처기업 역시 창업생태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Spilling, 1996). 더 나아가 창업 생태계는 일자리 증가, 경제 성장, 환경 조건 개선, 건강 증진 및 빈곤 퇴치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Cohen, 2005)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타트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 연구는 다양한 제목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기업가적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Bala, Subrahmanya, 2017; Isenberg, 2011),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Lee et al., 2017; Moore, 1993), 벤처 생태계(Venture Ecosystem)(배영임 외, 2012) 창업 생태계(김선우, 2017) 등이 있다. Beer(1964)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생물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산업 조직은 비즈니스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로 보았다.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시장 경제를 기계를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는 살아있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othsild, 2004). 생물학적 개념에서 채택한 생태계 개념은 1980년대 비즈니스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Kilduff & Tsai, 2003), 신생 기업 및 벤처 기업의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다. 비즈니스 생태계의 핵심 논리는 생물 환경처럼 기업과 주변 비즈니스 환경 간의 상호 관계이다(Bharadwaj et al., 2013). 즉, 비즈니스 생태학은 비즈니스와 기업 환경 간의 상호 관계인 것이다.

비즈니스 생태학의 중요한 목표는 생태학적 동기화(Synchronisation)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생물학적 종(Ecological Species)이 자연 생태계 내에서 진화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조정해 감으로써 비로소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올바른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Gobble, 2014; Lee et al., 2017).

2.2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확한 공식은 없으나, 선행연구는 창업생태계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연구는 창업 생태계 구축 원칙으로 지역조건 및 상상식 프로세스 접근 방법의 역할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생태계는 지역상황에 맞게 생태계를 형성하고, 민간부분이 참여해야하며,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하며, 클러스터 형성을 일부로 조정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창업 생태계 구축

원칙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문화적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하며, 법적, 관료주의 및 규제를 재수정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Isenberg, 2010).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13)은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접근가능한 시장(Accessible markets), 인적 자원(Human capital/workforce), 자본조달 및 금융(Funding & finance), 지원시스템 및 멘토(Support systems/mentors), 정부 및 규제 프레임워크(Government & regulatory framework), 교육 및 훈련(Education & training), 촉매제로서의 주요 대학(Major universities as catalysts), 문화적 지원(Cultural support)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Stam, 2015).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접근 가능한 시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와 같은 고객 및 해외시장 고객 등이 포함된다. 인적자원은 경영, 기술 인재, 기업경험, 아웃소싱 가능성, 이민자 인력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의미한다. 자본조달 및 금융은 친구, 가족, 엔젤투자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대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지원 시스템 및 멘토는 창업 관련 멘토 혹은 조언자, 전문서비스,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기업가 동료들 간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정부지원 및 규제는 사업 시작 용이성, 세금 인센티브, 기업친화적 법률 및 정책, 기본 인프라 접근성, 통신 및 광대역 서비스, 운송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교육 및 훈련은 예비대학(Pre-university) 교육이 가능한 인력, 대학교육이 가능한 인력, 기업가별 교육 등이 포함된다. 촉매제로서의 주요 대학은 기업가정신 존중 문화를 장려하고, 신생 기업을 위한 아이디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회사에 졸업생을 취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화적 지원은 위험 및 실패에 대한 인내, 자영업, 성공 사례, 역할 모델, 연구하는 문화,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혁신에 대한 선호 등이 포함된다(World Economic Forum, 2013).

그러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된다. Bahrami & Evans(1995)는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핵심 차원을 벤처 캐피탈,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인력 풀, 대학 및 연구 기관, 전문 서비스 인프라, 혁신 고객과 사용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Isenberg(2011)는 기업가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정책 개혁과 인센티브 설계, 벤처 캐피탈 펀드와 초기 엔젤투자, 기업이 정신이 되는 사회적 규범,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메커니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지역 시장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여섯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Bates, et al.,(2007)은 과거 연구를 토대로 소위 3M 프레임워크 적용해 기업가적 활동 요구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 3M 프레임워크는 시장(Market)에서의 기회 인식과 활용(Shane & Venkataraman, 2000), 자금조달(Money),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관리(Management)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Brush, et al.,(2009)는 3M 프레임워크를 확장해 “모성책임감(Motherhood)”, “중간적(Meso) 및 거시적(Macro) 환경”을 포함

하는 5M 프레임워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모성책임감은 가족제도 및 가족 지원과 관련된 요소이며, Meso(중간적)와 Macro(거시적) 이 둘을 묶어 하나의 ‘M’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중간적 환경은 지역 지원 및 공공 정책과 관련되며, 거시적 환경은 국가 정책, 문화, 사회 규범과 기대와 관련된다. 이처럼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은 자본(Capital), 인적자원(Human Resource), 정책(Policy), 지원제도(Support) 등이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스타트업 혹은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 구성요소들은 모두 취합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1> 기업가적 생태계 구성요소 및 역할

구성요소	역할 및 중요성	선행연구 출처
기업가정신	스타트업 탄생, 성장, 엑시트(exit)를 위한 핵심 생태계 시스템	Isenberg(2010) Isenberg(2011) Arruda et al.(2013) Bahrani & Evans(1995) Foster, et al.(2013) Bala Subrahmanya (2015) Haines(2016) Hemmert et al.(2016) Aaltonen(2016) Brush et al.(2009) Bahrani & Evans(1995)
시장	초기 제품 선택, 고객재창출, 네트워크, 다국적 기업	
재무	엔젤투자자, 개인회사자산,	
인적자원	노동력, 기술자, 관리 능력	
교육 및 연구	기술자, 관리 능력, 혁신, 기업가적 훈련 등과 관련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	
정부(규제 및 정책)	세금 인센티브, VC, 파산, 지적재산권, 노동자, 엑시트 공공 연구기관, 호의적인 규제 및 법률제도	
대기업	고객이자, 기업가정신 원천,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자, 기술 및 관리 인력, 투자자, 기술제공자, 스타트업 구매 인수자	
멘토 및 조언자	스타트업 창업 안정, 성장 및 엑시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언	
지원 기관	액셀러레이터, 기술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소프트웨어 인프라구조(예: 법률 및 회계 전문가), 하드 인프라구조(예: 텔레커뮤니케이션, 운송 및 로지스틱)	
문화	위험 및 실패에 대한 관대함, 혁신 지원, 창의성, 목표달성에 대한 원동력 및 갈망: 기업가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위치; 부의 창출에 대한 존경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 사전요구사항, 이용 가능한 지원 시스템, 실패결과, 성공 업적에 대한 홍보	
재능 유입	기업가정신 원천, 인적 자원, 조언자 및 멘토, 재무, 지원 네트워크 등	
모성책임감	가족 구성, 가족 부양 및 가족 지원 등	

출처: Bala Subrahmanya(2017)의 연구를 재구성

III.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 간 비교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구글캠퍼스 서울, K-ICT 본투글로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업과 기관의 지원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2016년 5월~6월 약 두 달여간에 걸쳐 온라인 및 방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은 먼저 본 자료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본 연구 결과가 향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연구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표본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지식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기술, 첨단로봇, 3D 프린팅, 첨단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기술 등 기술기반 창업가 295명을 대상(정부, 엔젤,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창업자)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표본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록 각 지역별 지자체 단체 및 민간 영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투자 기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한국 및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설법인의 스타트업 기업 역시 한국과 경기도 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문항은 Compass에서 실제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을 도출하여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가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생태계 환경은 Compass의 지수를 활용하였고, 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대상은 실리콘밸리, 텔아비브, 런던, 싱가포르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 및 지역을 선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생태계 시스템을 대표하는 다른 국가들의 롤 모델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Herrmann et al., 2015).

본 연구 표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서울소재 창업가는 약 73%, 판교 2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 모바일 인터넷이 59.8%, 사물인터넷 20.9%, 지식업무 자동화 13.9%가 전체 표본의 85.6%를 차지하였다.

3.2 분석 틀 및 측정 도구

앞서 문헌리뷰를 통해 살펴봤듯이, 스타트업 생태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별적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내 한국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rush, et al.(2009)의 5M 프레임워크 중 4개 요인(시장: Market, 자금조달: money, 관리: Management, 지원 및 정책:Meso, Macro Support and Policy)을 활용하였고, 모성책임감(Motherhood)은 여성 기업가정신에 제한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창업 및 기업 특성에 관한 글로벌 비교를 위해 창업 및 기업가 요인이 국가 비교 분석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글로벌 비교를 위해

Compass²⁾에서 발표한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중 본 연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지수들(창업가 특성, 인적자원, 자금조달, 목표 시장, 스타트업 경험, 지원 및 정책 등)을 추출하였고, 각 평가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가 특성은 개인 창업가 및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주로 기업가의 창업 연령, 여성설립자비율, 지분투자비율, 기술인력 보유 비율, 창업경험 근로자 비율로 이루어졌다. 인적자원은 기술인재, 기술인재 가용성 및 고용비용을 의미하고, 자금조달은 생태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본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목표시장은 해외 시장 진출 용이성을 의미하며, 지원 및 정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체에서의 스타트업 정책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정책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측정문항은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 사용한 측정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고(Startup Genome, 2015), Compass 문항을 토대로 설계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가 및 기업 특성은 “창업 당시 지분을 공유하고 창업에 참여한 여성은 총 몇 명입니까?”, “대표 창업자가 현재 회사를 창업한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만 나이)”, “창업 당시 지분을 공유하고 창업에 참여한 기술자(기술자, 엔지니어)는 총 몇 명입니까?”, “귀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중 스타트업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귀사에 지분을 투자한 자문역은 몇 명입니까?” 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개방형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율로 변환하여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적자원은 “S/W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귀사에서 일하고 있는 재택근무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귀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귀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몇 명입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개방형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 근로자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자금조달은 “귀사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에 대해 ① 가족, 지인,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아직 외부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Pre-seed round), ② 엔젤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Seed round), ③ 벤처캐피탈(VC)로부터 1차 투자를 유치한 상태(Series A), ④ 벤처캐피탈(VC)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한 상태(Series B 이상), ⑤ IPO, M&A, 대기업 흡수 등 투자액회수(Exit)에 성공한 상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① 번에 응답한 경우 “어디로부터 첫 번째 자금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② 번에 응답한 경우 “엔젤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근 유치한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에 대해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③ 번에 응답한 경우 “벤처캐피탈(VC)로부터 유치한 총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④ 번에 응답한 경우 “벤처캐피탈(VC)로부터 유치한 후속 투자규모는 얼마입니까?”, ⑤ 번에 응답자에게 “창업 후 몇 년 만에 투자비 회수에 성공하셨습니다?”에 대해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이 이루어졌고 각 응답은 다시 Compass의 글로벌 지수와 비교 평가되었다.

목표시장은 현재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현재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귀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① 투자제안서 내에 해외 진출 계획 없음, ② 투자제안서 내에 해외진출 계획은 있으나 아직 준비하지 않음, ③ 현재 해외 진출을 준비 중임, ④ 해외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실적은 없음, ⑤ 해외 시장에 제품/서비스 출시 후 실적(매출)을 올림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총 몇 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까?(한국어 포함)”에 대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정책은 “중앙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불만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조사 영역 및 측정항목은 글로벌 비교를 위해 기존 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외 각 영역의 분석항목 중 측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밀도(Startup Density: Number of Active Tech Startups in Scope Created Per 1,000), 지역 투자 라운드(Rounds with Local only Investors), 대도시 GDP(Metropolitan GDP), 이민 소요 시간(Immigration Time) 등의 문항들은 본 연구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측정 항목들에 대한 요약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항목

카테고리	분석항목
창업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설립자 비율 창업자 연령 최소 1명 이상 기술자 확보 창업률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엔지니어 임금 원격 근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드라운드 투자 유치 평균액 시리즈 A 투자 유치 평균액
목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시장 진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외국어 수
스타트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 수 지분 투자 자문역 수
지원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단체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Compass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를 토대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을 위해 한국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3.3 한국 스타트업 기업 특성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보고에 앞서 한국 생태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술 기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업력, 기업규모, 자본규모, 매출액 등 주요 기업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해외 국가들의 기업 특성은 자료수집 방법의 한계³⁾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국내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95개 기업 중 기업 업력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설립된 기업은 39.3%(116개), 2014년 23.4%(69개), 2013년 이전 설립된 곳은 37.3%(108개)로 확인되었다.

창업 당시 순수 자기자본금은 3천만원 미만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6.3%,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7.3%, 10억원 이상은 0.3%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기준 자기자본금은 평균 1억 9518만원으로 3천만원 미만은 34.6%,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8.8%였으며, 1억원 이상은 32.5%, 10억 이상은 4.1%로 확인되었다.

공동창업자(co-founder) 및 멤버 구성방식 등에 대한 회사 설립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분을 확보한 공동창업자 수는 평균 2.47명으로, 3~5명이 36.9%로 가장 많았다.

창업당신 인원은 평균 2.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도 기준 인원은 평균 8.77명으로 확인되었다. 창업 당시 최대 인원은 20명, 현재 최대 인원은 108명이었으며, 최대 증가치를 나타낸 기업은 3명에서 108명으로 3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창업 당시보다 인원이 줄어든 기업은 15개에 불과했으며 인원 변동이 없는 기업은 53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표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 한국 스타트업 기업 특성 분석 결과

기업 설립년도	전체		구성원 수	구성원 수			
	빈도	%		창업당시		현재(2016)	
	빈도	%	빈도	%	빈도	%	
~2011년	32	10.8	3명 이하	233	79	86	29.1
2012년	20	6.8	4명~5명	47	15.9	70	23.7
2013년	58	19.7	6명~10명	13	4.4	85	28.8
2014년	69	23.4	11명 ~	2	0.7	54	18.3
2015년~	116	39.3	계	295	100	295	100
계	295	100					
지분을 공유한 공동창업자 수			자기자본금 변화				
	지분 공유 인원		창업 당시	현재(2016)			
	빈도	%		빈도	%	빈도	%
0명	15	5.1	3000만원 미만	136	46.1	102	34.6
1명	83	28.1	3000만원~1억원미만	107	36.3	85	28.8
2명	77	26.1	1억원~10억원 미만	51	17.3	96	32.5
3~5명	109	36.9	10억원 이상	1	0.3	12	4.1
6~10명	9	3.1	계	295	100	295	100
11~20명	2	0.7					
계	295	100		107	36.3	85	28.8

3)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자료는 스타트업 정보분석 업체인 컴파스(<https://www.compass.co>)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자료는 확보 가능하나, 기업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해외 표본 특성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 역시 기술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3.4 국가 간 항목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항목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가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창업률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24%,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20%, 싱가포르 19%, 영국의 런던 18%, 한국 9%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국가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여성 스타트업 창업률이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창업률 저조함이 확인되었다.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한국의 경우 35.8세로 다른 도시와 비슷한 나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명 이상 기술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한 곳은 한국의 경우 73.8%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텔아비브가 100%, 런던 93%, 싱가포르 90%, 실리콘밸리 85%의 결과를 보인 다른 도시에 비해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재 구성원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기술 엔지니어 평균 임금은 실리콘밸리 1억 3천만 원, 런던 6천 9백만 원, 텔아비브 6천 7백만 원, 싱가포르 4천 2백만 원, 한국 3천 9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으로 싱가포르와는 비슷하지만, 실리콘밸리의 30% 수준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기술 엔지니어 평균 임금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구성원 중 원격 근무자, 여성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먼저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원격 근무자 비율은 실리콘밸리 43%, 한국 38%, 런던 31%, 싱가포르 28%, 텔아비브 20%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IT 기술이 다른 국가들보다 발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은 한국 32%, 실리콘밸리 29%, 싱가포르 26%, 텔아비브 24%, 런던 24%로 나타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근무자의 여성 비율은 다른 국가 지역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런던 53%, 싱가포르 52%, 실리콘밸리 45%, 텔아비브, 27%, 한국 17% 순으로 확인되어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미비하거나, 언어장벽, 해외 네트워크 부족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제도적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혹은 비자 획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해외 인재 고용비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고용 제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해외 인재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기업성과를 요구한다.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

서는 해외 인재를 고용하고자 해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고자 해도 비자 발급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조달 즉 투자유치 관련 결과를 비교한 결과, 스타트업의 평균 시드 자금(Average Seed Round)은 실리콘밸리 약 9억 9천만 원~10억 원, 런던과 텔아비브 모두 7억 7천만 원~7억 8천만 원, 싱가포르 4억 4천만 원~5억 원, 한국 약 1억 5천만 원~3억 5천만 원으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 Series A 자금(Average Series A Round)을 비교한 결과, 실리콘밸리 약 72억~85억 원, 런던 77억 원~78억 원, 텔아비브 50억 원~60억 원, 싱가포르 44억 원~50억 원, 한국 12억 원~1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투자 유치 금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 시스템, 제도 등이 선진국보다 덜 발달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목표시장 즉, 해외진출 실적과 관련된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텔아비브 74%, 런던 50%, 싱가포르 49%, 실리콘밸리 36%, 한국 20% 순으로 확인되어 현재 해외 시장 진출 성과는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본 결과,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 해외에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1.9%, 해외 진출했으나 아직 매출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 투자제안서에 현재 해외진출 계획은 있으나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확인되었다. 해외 투자 진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6%로 나타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진출이 필요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해외진출 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타트업 근무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리콘밸리 48%, 런던 40%, 텔아비브 49%, 싱가포르 42%, 한국 77%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 지역들이 50%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스타트업 근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분을 보유한 자문가 수는 실리콘밸리 1.94명, 싱가포르 1.27명, 텔아비브 1.26명, 런던 0.92명, 한국 0.89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런던과 비슷하게 지분을 보유한 자문역이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비교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한국이 약 37%, 실리콘밸리 23%, 런던 9%, 싱가포르 7%, 텔

아비브 0%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단체에 대한 평가 역시 한국 30%, 실리콘밸리 11%, 런던 10%, 싱가포르 5%, 텔아비브 0% 순으로 확인되어 실리콘밸리, 런던, 텔아비브,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지자체 단체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각 항목별 국가 간 비교 결과

항목	문항	실리콘 밸리	런던	텔 아비브	싱가 포르	한국 ⁴⁾
창업가 및 기업 특성	창업자 연령	36.2세	32.6세	33.6세	35세	35.8세
	여성 설립자 비율	24%	18%	20%	19%	9%
	지분투자 자문역수	1.94명	0.92명	1.26명	1.27명	0.89명
	최소 1명 이상 기술자 확보 창업	85%	93%	100%	90%	73.5%
인적 자원	창업 경험에 있는 근로자수	48%	40%	49%	42%	77.2%
	원격근무 근로자수	43%	31%	20%	28%	38%
	여성 근로자 수	29%	24%	24%	26%	32%
	외국인 근로자 수	45%	53%	27%	52%	17%
자금 조달	기술 엔지니어 임금	1억 3천 만원	6천9백 만원	6천7백 만원	4천 만원	3천 9백 만원
	시드라운드 투자유치평균액	9억9천만 ~10억원	7억7천만 ~7억8천 만원	7억7천만 ~7억8천 만원	4억4천 만~5억 원	1억5천~ 3억5천 만원
목표 시장	시리즈 A라운드 투자유치평균액	72억~85 억원	77억~78 억원	50억~60 억원	44억~50 억원	12억~16 억원
	해외 시장 진출	36%	50%	74%	49%	20%
지원 및 정책	제공되는 외국어수	2.2	2.3	2.6	2.8	2.2
	지자체 단체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23%	9%	0%	7%	20%
지원 및 정책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11%	10%	0%	5%	37%

- 단위 : 1\$(달러)은 ₩(원화) 1,100원으로 계산함

3.5 국가 간 항목 비교 결과 논의

국가 간 항목별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강점 및 약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른 선진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도 정부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한국은 원격 근무 비율 다른 국가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IT 인프라 기술이 잘 발달하여 원격 근무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인프라 기술 발달은 업무 유연성을 높여 줄 수 있고(Coenen & Kok, 2014), 원거리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근로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타 국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스

4) 한국은 서울과 판교 지역을 포함한 결과임

타트업이나 벤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에 해석되며, 스타트업 경험자가 스타트업에 재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근무 경험은 일종의 직업 사회화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무 사회화 경험은 향후 근로자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dkins, 1995).

반면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국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투자유치 문화 개선 및 한국 내수 시장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판로 확보 및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창업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장 및 발전에 있어 여성 기업가적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Naguib & Jmali, 2015) 보다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우 여성 창업가 비중이 9%로 저조하지만, 여성 인력의 고용률은 32%로 나타나 여성들의 스타트업 참여는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여성이 훗날 여성 창업가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된다면 보다 여성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는 국가 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지수 비교를 통해 한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상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 연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정성 연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IV. 생태계 이해관계자 인터뷰

4.1 인터뷰 목적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 간 비교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정성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해 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정성 연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지원기관, 엑셀러레이터, VC, 창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후,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 한국 생태계 강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2 인터뷰 방법 및 표본 특성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 조직은 창업 지원, 투자, 전문가, 창업가 등 총 4개 조직이었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창업가, 민간지원기관, 엑셀러레이터, VC투자자, 대학교수 등 기관 대표자 1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2016년 5월~6월). 인터뷰 기간은 설문조사와 함께 동기간에 병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77%, 여성 23%, 연령대는 20대 8%, 30대 31%, 40대 38%, 50대 23%를 차지하였고, 참여기관은 지원기관으로 민간지원기관이 23%, 투자기관의 경우 엑셀러레이터 39%, 벤처캐피탈 8%, 해외투자기관 8%, 창업가 15%, 전문기관 8%를 차지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차이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장단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여성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한국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인터뷰 문항은 다음 <표 6>와 같다.

<표 5> 인터뷰 참가자 및 특성

참가자	직급	성별	연령	조직	
1	센터장	남성	40대	민간기관	지원기관
2	팀장	여성	30대		
3	팀장	남성	30대		
4	대표	남성	40대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
5	심사역	남성	30대		
6	심사역	여성	30대		
7	임원	남성	40대		
8	매니저	남성	40대		
9	임원	남성	50대		
10	임원	남성	40대	벤처캐피탈	창업가
11	대표	남성	50대	해외투자기관	
12	대표	여성	20대	반도체 기업	
13	교수	남성	50대	P2P 은행	전문기관

<표 6> 참가자 인터뷰 질문 내용

인터뷰 문항	
지원기관, 전문가, 창업가, 투자자 공통 질문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차이점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 및 문제점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여성 창업가 관련 이슈(인식, 여성의 낮은 참여 등) 정부 지원 및 법적 문화적 제도에 대한 인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차별화를 위한 제언
투자자 추가 질문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투자 원칙 및 내부 규정 투자자금 회수방법 관련 이슈 한국 스타트업 투자 대한 전반적 인식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차이점, 강점 및 문제점 한국 스타트업 투자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외국 투자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외국 투자자)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해외 반응 (외국 투자자) 한국과 해외 가장 큰 차이점 및 차별화된 특징 (외국 투자자) 한국 스타트업의 문제점 및 성장 장애요인 (외국 투자자) 한국에 외국 자본이 유입 및 투자 활성화 방안

4.3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점, 한국 강점, 한국 생태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에 있어 가장 난제가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질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답변과 중복되는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인터뷰 분석결과는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 강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여성 스타트업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의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다소 중복될 수 있겠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관점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정리하여 추가로 제시하였다.

4.3.1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점에 대해 투자액회수 방법, 유능한 인재의 진로선택, 투자 문화, 창업가 출신의 멘토링 문화, 시장 등과 같은 요인들을 꼽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IPO 중심의 기업 투자액회수, 유능한 IT 인재들의 대기업 선호 성향이 강한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액회수, 한번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해서 투자하는 문화, 성공한 창업가들이 신입 혹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멘토링 하는 사회 문화가 강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7>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점

추출요인	인용문
창업가 출신의 멘토링 문화	"국내에서는 생태계 자체가 금융권에서 오다 보니까 미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기업가 출신들이 멘토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업이 친화적인 멘토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엑셀러레이터)
시장 규모	"실리콘밸리 자체가 시장이 크잖아요. 경쟁도 많지만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건 투자금액도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 받는데 그 난이도가 결코 낮지는 않다고 봐요."(엑셀러레이터)
투자회수 방법차이	"투자 회수 부분에 있어 한국의 경우 KOSDAQ 상장을 통한 Exi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외투자자들은 기업 M&A를 통한 Exit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는 투자사의 한계라기 보다는 M&A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해외투자사 대표) "우리나라가 M&A시장이 활성화 되면 모르겠는데 M&A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VC대부분이 IPO예요. 그런데 미국은 M&A 굉장히 많죠."(VC)
유능한 인재진로 선택차이	"해외에서는 창업을 하려고 해요.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일부 사람들이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텔 보다는 창업을 하려고 하죠. 창업을 해서 몇 년 버텨서 M&A하면 몇 십억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EXIT 기업 대표)
투자의 연속성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야 2번 혹은 1번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처럼 말만 해요. 미국은 들어가기 어렵지 한번 들어가지만 하면 A, B, C, D, E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회사를 팔아버리지요."(EXIT 기업 대표)

4.3.2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 스타트업 강점으로 정부지원 및 인프라, 인터넷 접근 편리성, 시드 라운드(Seed Round) 단계의 탄탄한 지원, 훌륭한 IT 인재, 성공사례를 통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등과 같은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시드(Seed) 단계의 탄탄한 지원은 강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초기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지원은 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해외에 비해 훌륭한 IT 인재를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확인되었으나, 반면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인재 고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기술 엔지니어 인재들이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훌륭한 인재 고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강점 및 인용문은 <표 8>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8>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

추출요인	인용문
적극적인 정부지원	"외국도 부러워 하는게 정부 지원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걸 부러워 하죠."(엑셀러레이터) "이 정도로 정부차원에서 드라이브 가는 나라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2013년 스타트업을 생각해 보면 대비해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정부가 기여를 한 덕분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정부가 그런 정도의 정책과 자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민간지원 기관)
뛰어난 IT 인프라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잘되어 있거든요. 외국에서 모바일 데이터만 이용하려고 해도 와이파이도 잘 안되고. LTE같이 속도가 빠른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전세계 어디든 가도 우리나라 수준 만큼 되지 않아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모바일 하면 되겠다 구나 해요. 여기서 테스트 베드를 보고 중국이라든지 하면 되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VC) "한국에서 좋은 건 서비스 환경이죠. 초고속 인터넷, 유저들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결제를 많이 하고, 일단 인터넷속도가 빠르고 하나...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관련된 것으로는 한국이 최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핸드폰 안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엑셀러레이터)
Seed 단계의 정부지원	"시리즈A와 B 단계만 보면 단 부분이 탄탄한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 어느 정도 올라 수 밖에 없거든요. 지원 시스템이나 초기 단계의 투자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엑셀러레이터)
훌륭한 인재 풍부	"인력이요.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잘해요. 비교적 인건비도 낮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iOS 개발자가 졸업하자마자 나와도 첫 시작 연봉이 1억이예요. 5-6년 되면 1억 6천, 2억 되요. 실리콘밸리가 경쟁도 있고 세금도 놓고 더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수요도 많죠. 그런데 한국에는 개발자도 풍부하고 디자이너들도 잘하는데 비교적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지요."(외국계 엑셀러레이터)

4.3.3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크게 법·제도 및 지원, 투자, 인적자원, 사회문화 등의 이슈로 구분되었는데, 각 영역으로 분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첫째, 법·제도 및 지원 관련 문제로 먼저 기업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외국인 고용 비율 20%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문제를 비롯한 정부투자 시 사업 변경에 대한 유연성 부족, 연대보증 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은 해외 인재 유입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고용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될 요인이다. 또한, 연대보증 제도는 창업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투자 관련 이슈로 투자 연결 네트워크 어려움, 초기 지원에 집중된 제도와 후속 투자 유치 어려움, 투자기관 및 지원 기관 정보 안내 부족, IPO에 지나치게 의존된 엑시트(Exit) 등과 같은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기술엔지니어 구인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많은 기술 인재들이 있으나 이러한 인재들이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다가,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술 인재 구인 문제는 주로 여성 창업가나 혹은 기술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가가 아닌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창업한 창업자들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수 합병에 소극적인 한국문화, 투자자들의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대기업의 엔지니어 기술 인재 차출, 정부의 자금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창업가의 비윤리성 등이 확인되었다.

<표 9>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추출요인		인용문
법제 도 및 지원 이슈	외국인 고용 비율 20% 제한 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기령, 100명 회사면 20%정도 키워니까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없어요. 이게 스타트업 단위에서는 다양성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이것 때문에 막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엑셀러레이터)
	연대보증 제도의 문제점	“정부지원사업과 세금혜택이 벤처기업에만 나가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은 다 보증을 해야 해요. 내 집을 담보로 하거나 뭔가를 보증해야 해요. 이걸 말 안 돼요. 사업하는데 사실은 나를 믿고 회사와 내 노력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정부 지원 받고 싶으면 돈 빌려서 빚쟁이가 되어야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되죠.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죠” (엑셀러레이터)
	정부투자 시 사업 변경에 대한 유연성 부족	“정부 지원이라는게 저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받으면 위험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지원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다 만들고도 망하는 경우가 있죠.” (엑셀러레이터)
투자 관련 이슈	투자 연결 네트워크 어려움	“투자자를 찾는건 쉬워요. 그런데 그들과 만나는 게 힘들 거죠. 투자자들도 콜드 메일을 다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투자기업을 선별해서 해드리는데, 이쪽은 사실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실제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민간지원기관) “저희는 기업들을 거의 다 소개를 통해서 만나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님이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소개 네트워크로 하고 있어요. 그냥 기업을 만나지는 않아요.” (엑셀러레이터)
	초기 지원에 집중된 제도와 후속 투자유치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야 할 것은 초기투자자 아니고 오히려 초기 이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초기투자자 지원을 열심히 해놓고 그 이후 단계는 너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후 단계가 더 중요하죠.”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 및 지원 기관 정보 안내 부족	어려움	“처음 투자 받고 나서 두 번째 투자를 받아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많아서 실적이 잘 안나요. 회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실적이나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걸 객관화할 수 없게 없게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단계만 지나면 매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 가치가 있어서 투자 받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자 매우 중요하죠.” (엑셀러레이터)
	IPO에 지나치게 의존된 엑시트(Exit)	“우리나라는 IPO가 대부분이고 기타 회수가 많아요. 기타 회수는 비상장일 때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좀 비정상적이죠.” (VC) “IPO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M&A가 2% 정도밖에 안되요. 우리나라가 IPO까지 가는데 평균 기간이 12년이 걸려요. 미국은 7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2배 정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M&A 해야 하는데 바이어가 없고...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지원기관)
	인적 지원 이슈	기술엔지니어 구인의 어려움 “엔지니어 분들을 공급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주로 대기업에 많이 계시고, 스타트업 쪽에는 많이 안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의 경우 스타트업에서 일할 동기가 없으신 데다가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들의 연봉도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기가 힘들죠. 여성 창업가의 경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가 없어서 엔지니어를 찾는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여성 창업가)
사회 문화 이슈	인수합병 에 소극적 기업	“어려운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2-3년 된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으면 바로 대기업이 인수해서 대기업들이 그걸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회사 인수를 통해서 하는 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렵죠.” (엑셀러레이터)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어떤 사업은 몇 년 뒤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줘야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투자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실적을 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문화도 아니니까요. 시작할 때 뭔가를 안보이면 투자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대기업의 엔지니어 기술 인재 차출	“대기업이 M&A를 안하고 사람만 빼가게 문제죠. 기업 담당자라면 핵심 엔지니어들을 빼 오는데 좋겠어요? 아니면 돈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하는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돈 주고 사게 되면 200억 줘야 하지만, 핵심 인재를 데려와서 뒷돈을 주거나 일부는 돈을 안 줘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업가 대표)
정부펀드 지원제도 악용하는 창업가의 비윤리성	“우리나라 경우 초기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좀비 기업을 키우는 거죠. 그때는 정부지원사업이 쉽다는 것을 알거든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발표하면 천만원, 이천만 원이 훨씬 더 편하니까. 고객 한 명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 그런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다니는 팀도 있어요.” (엑셀러레이터)	

4.3.4 여성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해 여성 기업가 및 투자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네트워크한계, 여성 기업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지적하였다(<표 10>). 이러한 이슈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역할이론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문화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Thébaud, 2015; 공혜원, 2018). 특히 한국의 경우 비록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남존여비 사상과 같은 전통적 문화가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여성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 창업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했을 경우 투자자들 대부분은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성별 간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창업가를 인터뷰한 결과에서는 투자자들이 여성 창업가에 대한 투자 우려를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혼 여성 창업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게 되면 가정의 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들을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슈들은 스타트업 내 기혼 여성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10> 여성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회 문화 이슈	성역할 고정관념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성이라서 어떤 이점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의 대상인 겁니다. 기령,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되면 어떻게 기업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여성창업가)
	여성 네트워크 한계	여성 창업가의 경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가 없어서 엔지니어를 찾거나 인력을 구하는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여성창업가)
	여성기업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	"여전히 여성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투자 받을 때나 회사를 동업자와 운영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예요. 그걸 깨려면 실력을 보여줘서 인식을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 보고 있죠." (여성창업가)

4.3.5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정부의 시리즈 단계 투자 지원 확대, CEO 중심 기업 운영 체계 변화, 투자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 성공사례 개발 및 적극적 홍보, 인적 다양성 활성화, 실패에 관대한 문화, 창업자의 성공경험공유 및 멘토링, 지원 기관에 대한 홍보, 경력단절 여성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인재 연결 프로그램, 여성창업 성공모델 등과 같은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출요인	인용문
정부의 시리즈 단계투자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야 할 것은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고 오히려 시리즈 A, B스테이지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단계에 정부 지원이 너무 약해요" (엑셀러레이터)

지원확대	
CEO 중심운영 체계변화	"우리나라는 사장 권한이 세고 책임도 강해요.. 투자자들이 좀 더 권한과 자신감을 갖고 회사도 정 안된다 싶으면 사장이 바뀌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EXIT 기업이 대표)
글로벌 진출지원	"우리나라도 창업 활성화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어요. 해외에 나가려는 기업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고,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지금도 프로그램은 있어요. 옛날에 디지털 로맨드라고 해서 몇 명 뽑아서 실리콘밸리가서 교육시키는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고 역할을 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VC)
우수사례 개발 및 적극적 홍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팀들이 생기면 끌어 줄 수 있죠. 최근에 소카를 SK에서 투자한 이슈도 있고요. 그런 예를 들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이 좋은 팀들이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에서 잘 커도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투자회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사례를 만들고 홍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엑셀러레이터)
M&A 성공사례 개발	"M&A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할 만한 사례가 나오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 쪽에서 많이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사례들. 우리나라는 M&A해서 대박났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인적 다양성 개선	"해외 창업가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한국이 인구구조로 보면 같은 문화권으로만 모여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비즈니스가 남미에서 갑자기 뜨면 그게 현지에 가서 현지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한국을 보면 미국, 중국, 남미 사람 다 있으면 서로 어울리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남미 문화는 이렇구나, 남미 창업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한국 스타트업 수준 자체가 글로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민간지원 기관 대표)
	"미국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데 있어선 다양성의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국내 스타트업과의 경쟁이 아닌 해외 스타트업들과의 인적, 사업적 교류를 통해 그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사 대표)
실패에 관대한 문화	"단계 별로 올라갈 때마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실패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 다시 스타트업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고, 다시 도전할 때는 좀 더 나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에 좀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엑셀러레이터)
창업자의 성공경험 공유 및 멘토링	"위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용기를 내서 많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아요. 청중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꿈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 창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생태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좋은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링하고 교육도 미국처럼 강의 같은 거 다 오픈해서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사업 성공을 통해 거둔 부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는 창업가들이 많을수록 그들이 다시 재 창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들의 사업에 참여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사 대표)
지원기관 홍보	저희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저희 나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 분야 내에서는 위치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창업이라는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 갈수록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지원기관에 대해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지원기관)
경력단절 여성과 스타트업 기업 간 인재 연결 프로그램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풀타임은 채용할 만큼이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경력단절 여성분들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계, 마케팅이 그런 부분에 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능력있는 경력 단절여성분들 중 일기정 양립을 희망하시분 분들과 연계하면 서로 니즈가 잘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경력단절 된 분들의 퀄리티가 좋다면 기업과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들이 사실 돈을 풍족하게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분들을 풀타임을 필요한 거라는 의문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여성창업 성공모델	"아직까지는 여성들에게 롤 모델, 성공사례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남성들은 주변에 아는 형들이나 누군가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거죠. 여성이라고 국한해서 봤을 때도 성공사례가 될 만한 롤 모델이 많이 나오면 여성들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엑셀러레이터)

4.3.6 투자자 관점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

투자자 관점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관점의 결과들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투자자들이 인식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은 정부지원, 뛰어난 기술인력, IT인프라 탁월성 등을 꼽았고, 약점으로는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 및 실행 미흡과, 투자사들의 매출발생 이전 단계에 대한 투자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과 해외 국가들 간 차이점으로는 투자회수방식을 꼽았다. 먼저, 투자 회수 부분에 있어 한국은 IPO 상장을 통한 Exit가 주를 이루는 반면, 해외 투자사는 M&A를 통한 Exit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사의 한계라기 보단 M&A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에 해외자본유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투자자들이 창업투자사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사의 설립이 전제가 되며, 모태펀드로 부터의 투자자 우선되고, 국내 창업투자사 경력을 지닌 펀드매니저 영입 요건 등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제약이 되고 있어 해외 투자자본 유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법으로는 투자자간의 공동투자 (Co-investment)를 장려하고, 기업 가치를 늘려가는 문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하나의 스타트업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이 협력하여 비전과 사업을 만들어 간다. 즉,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간의 공동투자를 장려하고, VC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 안에서 투자의 리스크 분산 및 가치 추가 (Value Add)도 같이 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인적다양성 추구 문화가 확인되었다. 한 외국 투자자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있어선 다양성의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과의 경쟁이 아닌 해외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가들과 인적, 사업적 교류를 통해 그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표 12> 투자자 관점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인식

구분	핵심 요인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 뛰어난 기술인력 • IT 인프라 탁월성으로 인한 사업개발의 스피드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실행(Practice)에 대한 이해 미흡, • 창업투자사/펀드의 seed round (또는 매출 이전 단계) 참여 부족
국내외 투자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회수 방법 차이: 한국은 IPO 상장을 통한 Exit인 반면, 해외 투자사는 M&A를 통한 Exit • 성공한 창업가가 창업가를 멘토링 하는 문화
투자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가능성 • 해외의 스타트업들과 경쟁 및 협업 능력
해외자본 유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사 설립 요건 완화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간의 공동투자(Co-investment)를 장려 • VC 네트워크 형성 및 가치 추가(value add) 문화 정착 • 다양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마련(경험 많은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멘토링 체제) • 인적 다양성 추구 문화
------	---

V. 결론 및 논의

5.1 결과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 메카인 한국을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글로벌 비교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Compass 보고서가 아시아 중 싱가포르, 홍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한국, 중국, 일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해외 관계자는 언어 장벽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메일 교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내 기술기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글로벌 지수와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한국은 정부주도 아래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을 비롯 다양한 기관들의 투자자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투자자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 내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 문화가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창업가들은 투자기관, 투자유치 방법 및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 유치 전략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실적은 해외 선진국들에 견주어 볼 때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 내수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가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노하우, 판로, 경험 등 마케팅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출을 준비하는 지역의 시장 및 언어 관련 전문

인력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한국 스타트업이 성장 및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인재 다양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다양성 측면에 있어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 선진 국가 및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인 고용 및 여성 창업 비율이 낮다. 게다가 한국은 제도적으로 기업 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비자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어 인재 고용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여성 창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기업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기업가정신 촉진 교육 혹은 경력단절 여성과 스타트업 기업 간 인재연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투자·회수 방법 등과 관련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시 단기적인 수익구조 중심으로 투자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 액회수 방법에서도 주로 IPO를 통해 투자를 회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문화를 개선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에는 지속적인 투자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문화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등의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필요하며, IPO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 창업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비롯한 전반적 사회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여성 창업가 대표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앞서 여성 창업가에게 향후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해 업무에 미치게 될 결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발간된 Kanze et al.(201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여성들에게는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Not to Lose)와 같은 방어초점(Prevention Focus)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남성들에게는 이길 자신이 있는지(To Win)와 같은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질문을 하는 등 투자자들의 질문방식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전반적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이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Naguib & Jmali, 2015) 여성들의 기업가적 활동 촉진 및 경제 참여 활동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은 원격근무 비율이 다른 국가 지역에 비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한국 IT 인프라 기술이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으로 IT 인프라가 꼽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IT 인프라 기술 발달은 업무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고(Coenen & Kok, 2014), 원거리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 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시장 대한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2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 “Compass”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측정 비교하고 있는 요인 및 항목들을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몇몇 스타트업 생태계 요인들에 대한 비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시장, 자금, 인적자원, 정부 지원 등과 같은 항목들을 비교하였으나, 선행연구는 이들 요인 이외에도 교육 및 연구, 멘토나 조연자, 미디어, 사회 문화, 모성 책임감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Bahrami & Evans, 1995; Bala Subrahmanya, 2015; Hemmert et al., 2016; Isenberg, 2011; Arruda et al., 201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좀 더 상세한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서울 및 판교를 선정하였다. 스타트업이 주로 한국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및 판교를 선정하였으나, 이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 표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 등의 창업에 적용하기에는 업종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표본의 경우 전체 모수가 표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업종 및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체계적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추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Bias)를 줄일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가를 인터뷰한 결과 여성 창업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표본을 좀 더 확보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창업자들의 성별 간 인식 차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보다 기업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공혜원(2018).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성별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3(6), 129-141.
- 김기찬·존로렌스(2015). 기업생태계 전강성의 국제비교: 한국, 독일, 일본,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18(2), 59-73.
- 김선우(2017).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전략 및 과제, *한국기업가정신*, 6, 9-11.
- 김진수·최중인·임충재·고혁진·이유중(2016). *기술창업론(개정판)*, 한국: 탐북스.
- 배영임·표한영·김영태(2012). *벤처생태계의 내실화를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전혜진·박재환(2015).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2), 85-96.
- Aaltonen, A.(2016). Factors Shap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the Rise of Entrepreneurship: A View from Top Management Journals, *Helsinki: Demos Helsinki*, 4-58.
- Adkins, C. L.(1995). Previous work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 longitudinal examin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839-862.
- Arruda, C., Nogueira, V. S., & Costa, V.(2013). The Brazilian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startups: An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in Brazil as seen from the OECD pillar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2(3), 17-57.
- Audretsch, D. B.(2009). *The entrepreneurial society*, *New Frontiers in Entrepreneurship*, Springer.
- Bae, Y. L., Pyo, H. Y., & Kim Y. T.(2012). *A Policy Study for Facilitating the Improvement of Venture Ecosystem: Focused on Israel*: Small and Medium Business Institute.
- Bahrami, H., & Evans, S.(1995). Flexible re-cycling and high-technology entrepreneurshi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7(3), 62-89.
- Bala Subrahmanya, M.(2015). New generation startups in Indi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the pas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50(12), 56-63.
- Bala Subrahmanya, M.(2017). How did bangalore emerge as a global hub of tech start-ups in india? Entrepreneurial ecosystem-Evolution, structure and role,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22(01), 1750006.
- Bates, T., Jackson III, W. E., & Johnson Jr, J. H.(2007). Advancing research on minority entrepreneurship,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3(1), 10-17.
- Beer, S.(1964). *Cybernetics an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haradwaj, A., El Sawy, O., Pavlou, P., & Venkatraman, N.(2013). Digital business strategy: toward a next generation of insights, *MIS Quarterly*, 37(2), 471-482.
- Brush, C. G., De Bruin, A., & Welter, F.(2009). A gender-aware framework for women's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1(1), 8-24.
- Coenen, M., & Kok, R. A.(2014). Workplace flexibility and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The role of telework and flexible work schedul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4), 564-576.
-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 Decker, R., Haltiwanger, J., Jarmin, R., & Miranda, J.(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3-24.
- Foster, G., Shimizu, C., Ciesinski, S., Davila, A., Hassan, S., Jia, N., & Morris, R.(2013).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dynamics.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 Gobble, M. M.(2014). Charting the innovation ecosystem,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57(4), 55-59.
- Haines, T.(2016). Developing a startup and innovation ecosystem in regional Australia,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6(6), 24-32.
- Haltiwanger, J., Jarmin, R. S., & Miranda, J.(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347-361.
- Hechavarria, D. M., & Ingram, A.(2014). A review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the entrepreneurial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 exploration with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set, *Journal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26(1), 1-35.
- Hemmert, M., Cheng, Y., Kohlbacher, F., Kotosaka, M., Loh, C.-T., & Waldenberger, F.(2016). High-tech Startup Ecosystems in East Asian Agglomerations: Are They Different from the West, *Tokyo: Germ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1-39.
- Herrmann, B. L., Gauthier, J.-F., Holtschke, D., Berman, R., & Marmer, M.(2015).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2015, <https://startup-ecosystem.compass.co/ser2015/>, retrieved March, 28, 2016.
- Isenberg, D. J.(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40-50.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13.
- Iansiti, M, Levien R.(2004).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82(3), 68-79.
- Jeon, H. J. & Park, J. W.(2015). A Study on Change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Wome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85-96.
- Kanze, D., Huang, L., Conley, M. A., & Higgins, E. T.(2018). We Ask Men to Win and Women Not to Lose: Closing the Gender Gap in Startup Fund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1(2), 586-614.
- Kilduff, M., & Tsai, W.(2003).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s*: Sage.

- Kim, J. S., Choi, J. I., Lim, C. J., Ko, H. J., & Lee, Y. J.(2016). *Technology Entrepreneurship(Revised Edition)*, Korea: Top Books Press.
- Kim, K. C. & Enriquez J. L.(2015).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s: A Comparison of Korea, Germany, and Japan,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2), 59-73.
- Kim, S. W.(2017). Globalization Strategy and Tasks of Korean Entrepreneurship Ecosystem, *Entrepreneurship Korea*, 6, 9-11.
- Kong, H. W.(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Gender and Social Prote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129-141.
- Kuckertz, A., Berger, E., & Allmendinger, M.(2015). What drives entrepreneurship?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in innovation-driven economies,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75(4), 273-288.
- Lee, M., Lee, M., & Kim, J.(2017). A Dynamic Approach to the Start-up Business Ecosystem: A Cross-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Asia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2(2).
- Moore, J. F.(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75-86.
- Motoyama, Y., & Watkins, K.(2014).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Kauffman Foundation Research Series on City, Metro, and Regional Entrepreneurship.
- Naguib, R., & Jamali, D.(2015). Female entrepreneurship in the UAE: a multi-level integrative len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0(2), 135-161.
- Schumpeter, J. A.(1934). *Change and the Entrepreneur*, Essays of JA Schumpeter.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pilling, O. R.(1996). The entrepreneurial system: On entrepreneurship in the context of a mega-ev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91-103.
- Startup Genome(2015). *Startup Ecosystem Report 2015*. San Francisco, CA: Startup Genome.
- Stam, E.(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Thébaud, S.(2015). Business as plan B: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gender inequality in entrepreneurship across 24 industrialized count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0(4), 671-711.
- Van de Ven, H.(1993). The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11-230.
- World Economic Forum(2013)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Dynamics*. Davos: World Economic Forum.
- Zahra, S. A.(2007). Contextualizing theory building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3), 443-452.

Korean Start-up Ecosystem based on Comparison of Global Count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Hyewon Kong*

Abstract

Technology-based start-up is important in that it encourages innovation,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contributes to job creation. Technology-based start-up activates entrepreneurship when appropriate support is provided within the ecosystem. Thus, understanding the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s cruc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Herrmann et al.'s(2015)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the ecosystem of each country by selecting representative regions such as Silicon Valley, Tel Aviv, London and Singapore which have the highest ranking in the start-up ecosystem. Second, we try to deeply understand the start-up ecosystem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VC investors, start-ups,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fessors related to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Korean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As a result, the Seoul start-up ecosystem showed a positive evaluation of government support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tele-work and start-up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employees wa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Seoul, It was confirmed that overseas market performance, human resource diversity, attracting investment, hiring technological engineers, and the ratio of female entrepreneurs were lower than those of overseas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Seoul was able to find that start-up ecosystems such as individual angel investors, accelerators, support institution, and media are developing thanks to the government's market-oriented policy support. However, in order for this development to continu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inuous investment system, expansion of diversity, investment return system, and accessibility to the global market. A discussion on this issue is presented.

Keywords: Entrepreneurship, Technology based Start-up, Entrepreneurial Ecosystem, Entrepreneurial Activity, Enterprise

* Ph.D.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ersity, chomiri79@cau.ac.kr